

경희를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들

경희대학교 발전기금 연차보고서 16
2024. 3 ~ 2025. 2

경희대학교 발전기금 연차보고서



지속 가능한 문명건설을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 대학'
경희의 길입니다

CREATE
FUTURE
TOGETHER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서울캠퍼스

Tel 02-961-0931~2 Fax 02-961-9554
우편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본관 108호

국제캠퍼스

Tel 031-201-3190~1 Fax 031-201-3192
우편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대학본부 103호

홈페이지 <http://give.khu.ac.kr> E-mail give@khu.ac.kr 문자수신전용번호 1588-3892(약정서 사진 전송)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CONTENTS

- 04 ▶ **총장 인사말**
- 08 ▶ **숫자로 보는 경희**
- 10 ▶ **경희의 도전과 성취**
- 16 ▶ **기부 리포트**
 - 한눈에 보는 기부금 현황
 - 기부금으로 이뤄낸 변화
- 20 ▶ **기부 스토리**
 - 경희를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들
 -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순간
 - 당신의 나눔에 답합니다
 - 나눔으로 미래를 창조하다
- 42 ▶ **모금 사업 소개**
 - Donation Guide
 - 경희라이언얼만인클럽
 - 토닥토닥 든든밥상
- 47 ▶ **기부자 예우**
 -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 네이밍 예우
 -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 52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65 ▶ **기부 참여 안내**

경희를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발행일 2025년 6월

발행처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제작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센터

KYUNG HEE UNIVERSITY



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 대학'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
경희가 창학 이래 추구해 온 남다른 가치입니다.
그 가치와 함께 경희는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는
'대학다운 미래 대학'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경희의 학술 역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학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부자님의 소중한 마음은 경희가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창조의 여정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경희의 든든한 동행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의 경희와 함께 걷는 봄날

경희의 아름다운 여정에 동행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 구성원 여러분과 더불어 경희의 내일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보내주시는 기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경희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 아래 '학문과 평화'의 길을 눈부시게 개척하며,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 왔습니다. 학술과 실천의 탁월성을 추구해 온 경희는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서 그 저력을 국내외에 널리 입증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설립 이후에는 문명 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내실 있는 교양교육을 선도하고, 체계적인 전공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융합형 인재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희는 다채롭고 뜻깊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4월에는 '크라운관 개관 50주년 기념 감사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1974년 개교 25주년을 기념해 완공된 크라운관은 왕관을 실은 배가 높은 뜻을 달고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상징적 건축물로, 평화의 전당이 완공되기 전까지 각종 주요 행사와 연주회, 토론회 등이 열렸던 공간입니다. 2020년 8월부터 소액 참여가 가능한 객석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 동문, 교수, 직원, 학생, 인근 상인 등 370여 명이 동참했고, 2억 원 이상의 기금이 모여 환경 개선 공사에 소중히 사용했습니다.

5월에는 '이영림 기념관 개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영림 동문(한의대 68학번, 영림한의원 원장)은 2016년, 평생 모은 부동산과 소장품 등을 기부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2층에 조성된 기념관에는 이 동문이 수집해 기증한 485건 1,042점의 기증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 동문은 한의과대학 후배의 노벨 의학상 수상을 꿈꾸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경희 100주년(2049년)을 준비하며 경희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결속을 다지는 '경희 사랑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희 Spirit & Pride 캠페인'과 '경희대 개교 75주년 및 체육대학 75주년과 공과대학 55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동문, 학생, 교수, 직원, 지역 주민 등 총 1,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가족 단위 참가자와 타 대학 학생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한 걷기대회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평화노천극장에서 출발해 기흥호수 둘레길을 도는 7.5km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줍깅'(쓰레기 줍기+조깅)과 함께 환경 정화 활동도 병행했으며, 참가비 전액은 재학생을 위한 학식 기부에 사용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천원의 점심'을 제공하는 '토닥토닥 든든밥상 캠페인'에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경희 100년을 향한 감사와 도약의 밤'이 열렸습니다. 경희의 여정은 언제나 '인류의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경희는 고유의 역사와 전통,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지구사회, 풍요로운 미래문명'을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 비전에 공감한 동문, 교수, 직원, 학부모, 학생, 일반인 등 많은 기부자가 함께하며 감사와 도약의 밤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동행 속에서 경희의 발전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70억 원에서 2024년 116억 원으로 최근 5년간 1.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활용됩니다. 2024년에는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크라운관 리모델링 △A&D홀 리모델링 △음악대학 리사이틀홀 리모델링 △의학 계열 임상시물레이터센터 구축 △동물실험실 환경 개선 등 교육 인프라를 개선했습니다. 연간 약 20억 원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희 구성원과 기부자 여러분이 함께한다면 ‘대학다운 미래 대학, 세계적인 명문 사학’이라는 청사진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성원과 기부자 여러분!

경희가 창학 이래 써내려 온 '경이로운 경희'의 역사는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세계적인 대학'에 대한 꿈에서 비롯됐습니다. 설립자는 1954년 5월 20일 학장 취임식에서 “한국의 어느 대학보다도 동양적이고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지금보다 백배, 천배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대학의 비전을 분명히 했습니다. 1964년,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에서는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큰 목표가 현명한 여러분들에 의해서도 계속 추진됨으로써 학술 발전을 통한 인류의 문화 향상과 복리 증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설립자의 뜻은 경희

가 교육과 연구의 미래를 선도하는 동시에,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실천적 책무를 다해 왔음을 보여주며, 지금까지도 그 정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문명 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희 정신의 수렴과 발산이 필요합니다. '진취적인 기상'과 '창의적인 노력', '건설적인 협동'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는 이미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이어가며, '대학다운 미래 대학'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경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더욱 깊

어졌습니다. 학문과 교육을 위한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본초학 성적우수 장학금, 의약학 분야 현물 기부, 문규호 교수 약정식, 송화경·박주택·안덕균 교수 기부금 전달식, 씨앤크 컴퍼니 및 약학대학 90학번 동기회 발전기금 전달식, 권지혜 동문과 김경숙 기부자 기부 및 아너스클럽 위촉,故 이규종 명예교수 유족의 장학금 10억 원 기부 등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이름을 남긴 분들도 계셨습니다.故 이민영 동문 강의실 네이밍 헌판식, 이화형 교수 강의실 네이밍 헌판식, 문주현 회장 아너스클럽 위촉식, 전훈영 동문 기부금 전달식, 동안교회의 장학금 기부,故 박가현 학생 학부모의 발전기금 전달도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동행의 사례도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4개 입주기업의 창업지원기금 기부, 치과대학의 핵심 가치인 'HELPERS'를 실천한 치과대학 동문 부부의 기부 등은 경희를 향한 다양한 형태의 동행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경희는 2024년 11월 국내 대학 최초로 세계적인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장으로는 201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경희는 노보셀로프 교수와 함께 하버드대 김필립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김필립 교수는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한국인'으로 불리는 세계적 석학입니다. 앞으로 센터는 초전도체, 그래핀 등 양자물질의 성질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시작된 '천원의 점심' 캠페인은 저렴하지만, 건강한 식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서울캠퍼스에서 11~12월 2주간 총 10회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해 5,000여 명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국제캠퍼스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000여 명이 친환경 도시락 및 텀블러 지참 음료 배부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친애하는 구성원과 기부자 여러분!

개교 76주년을 맞아 올해에도 경희 100년을 향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필요한 곳곳에 여러분의 동참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창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구성원의 열정과 기부자의 뜻을 모아 '문화세계의 창조적 지평'을 넓혀가며, 더 나은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더욱 치열하게 모색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먼저 고민하는 실천적 기획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구성원들과 기부자 여러분이 함께한다면 '대학다운 미래 대학, 세계적인 명문 사학'이라는 청사진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온기가 경희에서 배우는 인재들에게 든든한 마중물이 되 줄 것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총장 김진상



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경희

대학 현황

 편제	서울캠퍼스 단과대학 학부·학과 14 개 49 개	국제캠퍼스 단과대학 학부·학과 9 개 46 개
	재학생 내국인 학생 학부 25,579 명 대학원 8,809 명	외국인 학생 학부 4,144 명 대학원 2,784 명
 교원	전임교원 1,378 명	비전임교원 2,520 명
	취업률 68.1 %	스마트팜과학과 100 % 치의학과 100 %
 장학금	학생 1인당 330 만원	장학금 총계 815 억 원

도전과 창조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대학 평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여도	세계 23 위	세계 사립대 2 위	
	2024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국제화	국내 1 위	산학협력 국내 4 위	
	2025 THE 세계대학 평가		
	호텔관광 세계 15 위	통신공학 세계 33 위	식품공학 세계 77 위
	2024 상해 학문 분야 평가(GRAS)		
	호텔관광, 언어학, 석유화학, 치의학 세계 100 위권	101~200 현대언어, 간호학, 국제개발, 정책·행정학, 스포츠관련학, 농·임학, 영어영문학, 건축학, 지리학, 경영학, 약학	
	201~300 정치·국제학, 미디어학, 경제학, 토목·구조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 화학공학, 기계·항공공학, 컴퓨터공학, 재료과학, 의학, 물리·천문학, 수학	2025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	
	중앙일보 대학 평가 종합 6 위	공학 6 위	논문 인용 5 위

‘세계적인 대학’을 향해 전진, 또 전진



“세계 명문 대학으로
 웅비할 수 있는 초석 다지고,
 경희 가치에 부합하는
 창발적 생각으로
 성과의 퀀텀 점프 이뤄낼 것”

‘문화세계의 창조’. 경희의 설립 정신입니다. 인류사회의 새로운 미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평화롭게 상생하는 지구공동사회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경희의 설립 정신입니다.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1951년 펴낸 『문화세계의 창조』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설립자는 경희의 설립 정신과 함께 담대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국내, 아시아를 넘어 세계 명문으로 도약하자!’ 학문과 평화, 학술과 실천의 결합으로 상징되는 경희의 남다른 여정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경희는 한국전쟁 중에 교사도 교지도 없는 그야말로 이름뿐인 대학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내면서 ‘세계적인 대학’을 향한 꿈을 키웠습니다. 2024년에도 경희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세계 명문 대학으로 웅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경희 가치에 부합하는 창발적 생각으로 성과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이뤄내겠다는 포부와 함께 혁신과 도약에 집중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기여도 세계 23위 ‘역대 최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모두 세계 순위권 달성,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세계 4위 등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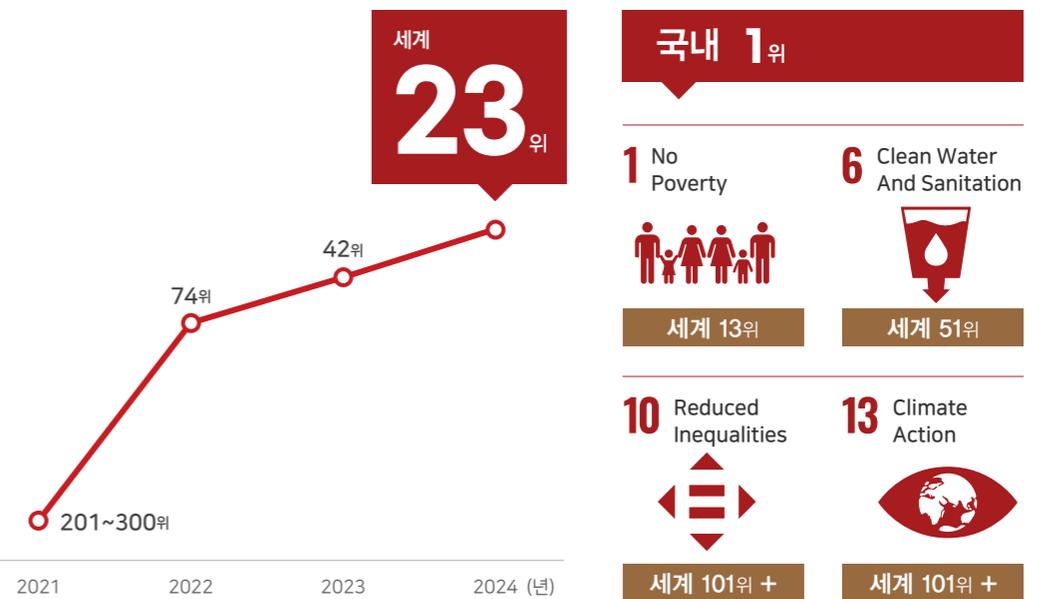
경희가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하는 ‘2024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23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평가는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책무, 즉 ‘공공성’을 주요 평가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해 인류와 문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가늠할 지표가 됩니다.

경희는 SDGs 17개 목표에서 모두 세계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캠퍼스 내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노력을 인정받아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SDG 8)’는 세계 4위, ‘산업, 혁신과 인프라 목표(SDG 9)’

는 세계 19위에 등극했습니다. 2024년에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BRIDGE 3.0)’과 ‘대학 기술경영 촉진사업(TMC)’을 연달아 수주해 대학의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경희만의 가치 있는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HE는 SDGs를 위한 파트너십(SDG 17)과 변환점수 기준 상위 3개 목표를 반영해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의 종합 순위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대학은 SDG 17을 포함해 4개 목표의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희는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가 처음 시행된 2019년부터 SDGs 전 목표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SDGs의 지향점과 17대 목표 모두 경희가 창학 이래 계승·발전시켜 온 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경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모든 목표에서 세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의 가치와 전통을 추구하며 학술기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남다른 길을 열어온 경희의 노력이 SDGs 전 목표를 아우르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024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 '역대 최대' 순위권

호텔관광 세계 42위, 언어학·석유화학·치의학 세계 100위권

경희가 '2025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역대 최대인 32개 학문 분야에서 세계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호텔관광 분야에서 세계 42위를 달성했고, 최근 추진 중인 우주과학, 바이오헬스, 양자과학, 첨단소재, 인공지능, 인류문명 등 6대 중점분야 관련 학문 분야에서 순위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호텔관광을 포함해 언어학, 석유화학, 치의학 등 4개 학문 분야는 세계 100위권을 기록하며 세계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언어, 간호학, 국제개발, 정책·행정학, 스포츠관련학, 농·임학 등 11개 분야는 세계 200위권에 올랐습니다. 다수의 학문 분야에서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했고, 국제개발, 스포츠관련학, 석유화학, 치의학, 교육학 등 10개의 분야가 신규로 순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양자과학 역량 강화 통해

물리·천문학 세계 순위권 100계단 상승

경희는 국제공동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탁월성을 쌓아온 우주과학 분야에 이어 양자과학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물리·천문학 분야의 세계 순위가 100계단 뛰어올랐습니다. 물리학과 손석균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 선정돼 4년간 약 20억 원을 지원받아 양자 통신 상용화를 위한 한계 극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주과학과는 지속해서 우주에 도전하며 '한국 최초'의 도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기상 관측 전용 위성 '천리안 2A호'의 우주 기상 탑재체를 개발한 데 이어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탑재체를 개발했습니다. 천리안 2A호의 우주 기상 탑재체를 개발한 우주과학

과 선종호 교수 연구팀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추진하는 민간 차원의 달 탐사 계획(CLPS)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LPS는 50여 년 만에 인간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입니다. 한국은 탑재체 4종 개발을 맡았는데, 그중 가장 먼저 개발된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가 올해 9월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탑재체를 선종호 교수 연구팀이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LUSEM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입니다. 달 표면의 고에너지 대전입자 관측기기가 운영됐던 사례는 미국의 아폴로 임무와 중국의 창어 4호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LUSEM 개발은 한국과 경희의 우주과학 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을 알리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경희는 바이오헬스와 AI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체공학학과 이진석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AI 프론티어랩'과 '대학 ICT 연구센터' 사업에 잇달아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은 미국 뉴욕대와 국내 대학 공동 연구진이 참여해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의료·헬스케어 분야에 참여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낮추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연동건 교수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호흡기 알레르기학 연구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융합기술연구원 중심으로

학문 간 벽 넘나드는 창의·융합 연구 강화

최근 경희는 미래사회를 이끌 과학기술 학문의 융복합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공동체를 구현하고, 지구적 난제에 도전하는 창의·융합형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설립한 융합기술연구소를 융합기술연구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커넥티비티,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빅데이터, 실감미디어·디지털트윈, 에너지·환경, 우주·미래모빌리티, 첨단소재, 스마트팜, 양자정보, 에이지테크, 인공지능건축,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산하에 1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융합센터는 학문 간 벽을 허물어 융합연구, 융합교육, 산학협력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열린 대학, 열린 학습, 열린 전공' 교육 혁신 추진



경희는 첨단산업 관련 교육과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학과 간 장벽 없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 혁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융합 다전공 중심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열린 대학', '열린 학습', '열린 전공'을 목표로 교육 혁신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전공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전공 자율 선택제를 확대했습니다. 서울캠퍼스 자율전공학부를 개편하고, 국제캠퍼스에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해 열린 전공 교육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희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2024년 성과평가에서 교육 혁신 성과 부문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평가에 따라 전년 대비 31억 원 증가한 13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자율 혁신을 통해 양질의 교육 및 창의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경희는 이 사업을 통해 미래 사회 변화와 고등교육 흐름에 맞춘 학습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 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AR/VR, 메타버스, 생성형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개발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교육 혁신 성과 A등급 획득, 전공 선택권 확대· 첨단기술 교육콘텐츠 개발 우수한 평가 받아

경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고, 관련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학생에게 제공하며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희는 첨단산업 관련 교육 확대를 위해 2024년 양자정보융합전공과 우주인공지능융합전공을 신설한 데 이어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는 2025년 신설됐습니다. 대학원 첨단학과 정원은 110명 늘어납니다. 경희는 교육부로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순증을 인가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그린바이오 분야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 선정을 기회로 삼아 그린바이오와 메타버스 전문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자과학 선도 위해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 개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
센터장 임명,
하버드대 김필립 교수 초빙**

양자과학은 국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입니다.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도 양자과학기술 패권 선점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며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경희는 양자과학 선도를 위해 관련 분야의 석학을 모아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 연구로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와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하버드대 김필립 교수를 ES(Eminent Scholar)로 임용했습니다. ES는 세계적 연구자와 실천가를 위한 직책으로,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경희의 미래 지향적 학술 활동과 국제교류 증진 등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는 세계적 석학과 경희대 내의 양자 기술 연구자의 협력을 통해 양자 기술 연구를 집결하고, 경희대 양자 기술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양자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경희대 양자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차세대 양자물질, 맞춤형 양자소재 개발, 최적화 검증 등의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노보셀로프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 경희의 양자 연구를 이끌어 갑니다.

노보셀로프 교수는 응집 물리학, 중입자 물리학 및 나노 기술 분야의 연구자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필립 교수는 한국인 최초의 벤저민 프랭클린 메달 수상자로, 응집 물질 물리학과 나노과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그래핀과 이차원 물질, 그리고 양자물질에 관한 혁신적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경희는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사진 상단)와 하버드대 김필립 교수(사진 하단)를 ES로 임용했습니다. 노보셀로프 교수는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아 경희의 양자 연구를 이끌어 갑니다. 그는 센터 개소식에서 "기술만큼 중요한 것은 과학에 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재료에서 다양한 새로운 현상을 발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럽연합 최대 연구 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참여**

**질량분석기 활용한
EVs 특성 분석 분야의
세계적 연구 역량 인정받아**

경희가 유럽연합의 최대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참여해 미래 식량 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호라이즌 유럽은 연구개발(R&D) 활동을 장려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은 2024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준회원국에 가입했습니다. 응용화학과 김광표 교수 연구팀이 호라이즌 유럽에서 지원하는 'FarmEV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FarmEVs 프로젝트의 목표는 농장에서 나온 '세포 밖 소포체(Extracellular Vesicles; EVs)'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식물의 다양한 조직에서 EVs를 추출해 친환경 비료를 개발하고, 친환경에서 재배된 식물로부터 EVs를 추출해 약물 운반체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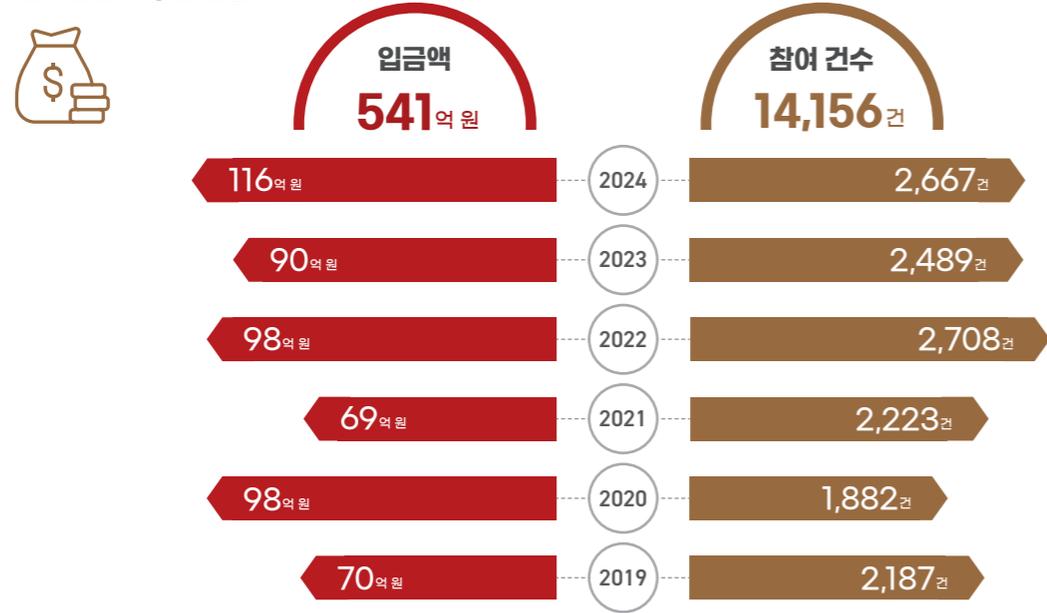
니다. 인간·동물·환경의 상호 의존성에 집중한 '원헬스(One Health)' 개념을 적용해 식물 세포배양을 이용한 외부 세포 소포체 지원 농업 구축과 바이러스 저항력이 강화된 식물 및 두과작물의 공생 활동 증진 연구도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mRNA 백신 개발에 버금가는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라이즌 유럽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mRNA 백신 개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김광표 교수 연구팀은 그동안 국제학회에서 질량분석기를 활용한 EVs 특성 분석 분야에 많은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탈리아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우수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이 연구가 FarmEVs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의 연구력을 인정받아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광표 교수는 호라이즌 유럽뿐 아니라 미국 국립암센터와 암 정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다양한 암 질환의 원인을 치료하는 성질을 발견했습니다. 김 교수는 암 치료 성질과 FarmEVs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하는 약물 전달체를 결합해 암 치료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계획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부금 현황

최근 5년간 기부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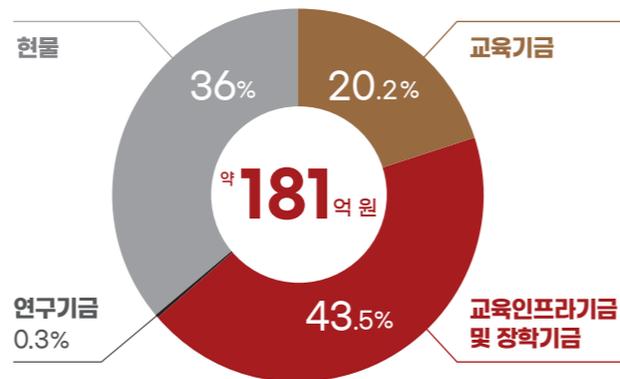
2024학년도 발전기금 모금 현황

현금 기부 기준

약정 총액	입금 총액	후원 건수	신규 약정 건수
약 99억 원	약 116억 원	약 2,667건	

2024학년도 기부금 모금 현황

구분	종류	금액
현금	교육기금	3,671,686,173원
	교육인프라기금 및 장학기금	7,890,234,357원
	연구기금	55,318,703원
현물	주식 및 물품	6,522,738,353원
합계		18,139,977,586원



2024.3.1.~2025.2.28.

경희와 함께 미래를 창조하고자 하는
기부자님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사랑을 기반으로
경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기금 사용 현황

기부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이 경희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기금의 목적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교육인프라기금과 연구활동 지원 기금이 집행됐습니다. 특히 교육기금과 교육인프라기금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양 캠퍼스 공연장(크라운관, A&D홀) 리모델링 사업에 투입돼, 경희만의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울러 양자과학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연구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자과학 연구의 중심지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이뤄낸 성과 영상 보기



기부금으로 이뤄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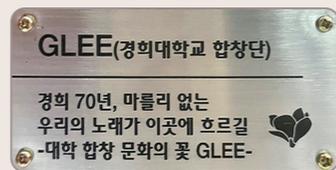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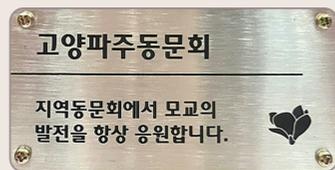
경희는 기부자님께서 오랜 기간 보내주신 고귀한 나눔을 소중히 기억합니다. 기부금은 대학과 미래사회를 위한 가치 창출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기부자님의 뜻에 맞게 기부금이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상상력과 창의력, 실천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은 물론, SDGs 활동과 해외 전공 연수 활동 등을 지원했습니다.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확대하기 위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수업 환경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튜터 '알렉스(ALEKS)'도 도입했습니다.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크라운관 리모델링, A&D홀 리모델링, 음악대학 리사이틀홀 리모델링, 의학 계열 임상시뮬레이터센터 구축, 동물실험실 환경 개선 등 교육 인프라를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이 외에도 기금을 활용해 2024년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를 개소하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를 초빙해 경희의 6대 중점분야 중 하나인 양자과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세계 상위 1% 연구자(HCR)와 세계 상위 2%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도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크라운관 리모델링



객석 네이밍



예술·디자인대학 A&D홀 미디어 월, 북카페 공사



객석 네이밍



문과대학 해외 전공 연수 활동



경희를 밝히는 아름다운 사람들

경희대학교의 많은 기부자님께서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금 조성에 힘써 주셨습니다. 든든한 응원에 깊이 감사합니다.

대학은 교육, 학습,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매진하며 선후배 간의 정을 쌓고 있습니다.

경희는 기부자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대학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경희의 발전을 위해 기부

약학대학 문규호 교수 발전기금 1억 원 약정

2024년 3월 임용된 신입 교원인 약학대학 한약학과 문규호 교수가 발전기금 1억 원을 약정하며 아레테클럽에 가입했습니다. 2024년 5월 3일(금)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아레테클럽 약정식을 개최해 문규호 교수의 아레테클럽 가입을 축하하고, 기부 약정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규호 교수는 “부친께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박사까지 마치시고 한의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 가족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계속하고, 교수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려서부터 경희 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는 그동안 우리 가족이 경희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친과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기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진상 총장은 “기부에 보답하는 길은 총장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직자들과 힘을 합쳐 대학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외협력처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아레테클럽을 발족했습니다. 기부를 통해 선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원 모임인 아레테클럽은 총 3천만 원 이상 기부하거나 약정한 경희대 소속 교원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 교원에게는 연구실 명패와 무료 주차권, 무료 건강검진권, 문화행사 초청 등의 예우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한의과대학 노벨 의학상 수상자 배출, 평생의 염원

이영림 동문(한의대 68학번, 영림한의원 원장)
부동산과 소장품 모교에 기부·이영림 기념관 개관

이영림 동문이 기증한 이란의 근현대 유물 등을 모아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2층에 이영림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동문은 2024년 5월 10일(금) 열린 이영림 기념관 개관식에서 “1976년 이란으로 건너간 후 여러 과정을 거치며 모은 재산들을 모교에 기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후배들이 꼭 노벨 의학상을 받아주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동문은 2016년, 평생 모은 부동산과 소장품 등을 모교에 기부했습니다. 중앙박물관은 2017년 기증품 인수 준비를 시작해 2019년부터 기념관 조성을 본격화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기증품을 인수해 총 485건 1,042점을 기증품으로 등록했습니다. 대리석 흉상, 코모드, 괘종시계, 상들리에, 양탄자, 채색 금장 크리스탈 주전자와 화병, 나폴레옹 러시아 진군 도자기화병, 채색 유리 등기구 등이 대표적인 기증품입니다.

이영림 동문은 1976년 이란으로 향해 1990년까지 이란 왕실 주치의와 동양의학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당시 의료 활동을 통해 이란 현지에서 ‘신이 보낸 한의사’, ‘골드 핑거’ 등의 찬사를 얻었습니다. 1994년 영구 귀국 후에는 국가안보포럼 이사장 등의 역할을 맡았고, 활발한 저술 활동도 펼쳤습니다.



모교의 발전을 기대하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문주현 동문(회계학과 83학번, ㈜MDM 회장)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촉 및 기념 특강 개최

대동제를 앞둔 2024년 5월, 오비스홀에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습니다. 문주현 동문의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촉식과 특강이 개최된 날이었습니다.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은 교역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문 동문은 모교에 10억 원 이상 기부했습니다. 운영하는 문주 장학재단을 통한 장학금 기부와 천원의 점심밥 기부 등 기부 형태도 다양합니다.

위촉식과 특강은 ‘문주현 강의실’이란 이름이 붙은 오비스홀 213호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경희가 추구해 온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의 밑바탕에는 불굴의 환경에서 도전을 넘어 세계의 굴지 대학으로 성장하려는 설립자의 정신이 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문주현 동문의 삶을 살펴보니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점이 모교와 닮은 것 같습니다”라며 문 동문의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촉을 축하했습니다. 문 동문은 모교의 환영에 답하며 “동문으로서 대학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발전 계획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문으로 모교의 발전을 기대하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위촉식 이후에는 경영대학에서 진행된 동문 초청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생각의 힘’이 주제였습니다. 문 동문은 우리나라 1세대 디벨로퍼(developer)로 창조력과 실천력을 통해 기업을 발전시켜 온 창업 경험을 후배들에게 들려줬습니다.



2001년부터 꾸준히 기부 32명 학생 장학 수혜

故 이민영 동문(전자계산공학과 89학번)
강의실 네이밍 현판식 진행

이민영 장학은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이민영 동문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01년부터 유가족이 기부를 시작했고, 지금껏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32명에 달합니다. 이민에 기부자는 “살아생전 선생님께서 학생을 가르치던 동생의 뜻을 이어가고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모교와 후배들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 마음처럼 경희대와 동생의 후배들이 잘되길 바랍니다”라며 기부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 뜻을 기려 2024년 6월 13일(목) 국제캠퍼스 전자정보대학관에서 故 이민영 동문 강의실 네이밍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이민영 장학의 1호 수혜자인 정보처 문준수 차장이 자리에 함께해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문 차장은 “1호 장학 수혜자로 선정된 덕분에 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자정보대학관 137호는 이민영 동문 강의실로 명명됐습니다. 현판에는 ‘수많은 이민영 장학생들과 경희대학교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아름다운 공간에 담았습니다’는 문구가 새겨져 이민영 동문과 유족의 실천을 기렸습니다. 이민에 기부자는 “동생을 기억해 준 사람이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희 Fellow(교육)로 거둔 성취, 다시 학생에게 돌려줘

의상학과 송화경 교수, 경희 Fellow 상금 전액 기부

2023 경희 Fellow(교육)에 선정됐던 의상학과 송화경 교수가 상금을 의상학과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더불어 추가 기금을 약정하며 아레테클럽에도 가입하게 됐습니다. 경희 Fellow는 교육과 연구의 탁월성 제고와 학문적 성취를 존중하는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매해 교육과 연구 각 분야에서 경희를 대표할 만한 교수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송 교수는 2024년 7월 17일(수)에 개최된 기부식에서 “경희 Fellow(교육) 선정 이후 부담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준 상이니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주자’라는 마음에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담을 내려놓는 일로 느껴서 오히려 홀가분하기도 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의상학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송 교수는 기부를 결정하며 의상학과 실습실 환경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유산, 미래 세대 위해 가치 있게 쓰였으면

권지혜 동문(화학과 86학번) 장학기금 1억 원 기부

“젊은이가 돈이 없어서 기가 죽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던 어머니의 뜻을 기리고자 장학금을 기부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어머니를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권지혜 동문이 어머니故 김경주 여사의 유산 1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동문은 “기부는 어머니의 오래된 결정이었고, 저는 그저 어머니의 마지막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희는 권지혜 동문을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권 동문과 어머니의 이름을 따 이과대학 B214호를 ‘권지혜·김경주 분석화학실험실’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9월 25일(수) 이과대학에서 권지혜 동문의 아너스클럽 위촉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동문은 “몇 해 전, 같은 과 동기인 김동진(주)퍼슨 대표가 매년 1천만 원씩 10년간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부하면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고 좋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부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강의실 밖으로 교육과 나눔을 실천하다

김경숙 기부자, 학생 150여 명 해외 연수 지원
아너스클럽 위촉식 및 강의실 네이밍 진행

김경숙 기부자는 2003년 객원교수로 부임하며 경희와의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김경숙 기부자는 불링과 인생론을 강의하며 16년 동안 체육대학과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강의실 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새로운 문화와 교육을 경험하도록 사비를 들여 일본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150여 명의 학생들이 김경숙 기부자의 지원으로 일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은 9박 10일간 일본 문화와 스포츠를 경험했습니다. 김경숙 기부자는 숙소, 항공료 등 모든 경비를 부담했고, 학생들의 연수계획에 맞춰 활동비도 지급했습니다. 그는 이 외에도 경희와 후학 발전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2024년에는 경희대학교 개교 75주년 및 체육대학 건립 75주년을 기념해 기부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화)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체육대학은 기부자의 실천을 기리기 위해 체육대학 205호를 김경숙 강의실로 명명했습니다. 김경숙 기부자는 자신의 이름이 담긴 강의실을 바라보며 “앞으로 매 학기 김경숙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특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경숙 강의실에서 수강하는 학생의 꿈을 듣고,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추가 약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시대, 대학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

故 이규중 명예교수 유족, 장학금 10억 원 추가 기부
운연(雲淵)장학기금 수혜 학생 3년간 800명 넘어

경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故 이규중 명예교수의 뜻을 되새기고자 2022년 20억 원을 기부한 이규중 교수의 부인 김인선 여사와 유족들이 2024년 1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이 교수의 아호를 따 ‘운연(雲淵)장학기금’으로 조성됐고, 2022학년도 1학기부터 3년간 817명의 학생에게 15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추가 기부로 2027년까지 장학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 10월, 김진상 총장과 김중복 대외부총장이 요양을 위해 경희대한방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와 유족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딸 이미경 여사는 “경희에게 받은 은혜가 큼니다. 아버지가 경희대와 설립자 조영식 박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희와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 학교 운영이 수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대이니만큼 학교도 예전과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운연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손 글씨로 써서 기부자에게 보내며 정서적 유대감을 키워왔습니다. 김인선 여사와 유족들은 “손으로 글씨를 잘 쓰지 않는 세대들이 손수 써 보내준 답례 편지에 담긴 사연들을 하나씩 읽으며 감동했습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50여 년 전 방문한 경희 캠퍼스, 기부자로 인연 맺어

남순자 여사, 평생 모은 1억 원 장학금 기부
"대한민국 대표할 인재 양성" 요청

망우동에 사는 남순자 여사에게 경희는 오랜 추억의 한 장면 속 배경입니다. 1960년대 후반, '경희 캠퍼스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 10여 명과 방문했습니다. 10대였던 그 소녀는 2024년, 70대 노인이 돼 다시 경희대를 찾았습니다. 회기역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회기역부터는 걸었습니다. 세월이 굽은 등은 걸음을 어렵게 했지만, 출발 전의 다짐이 굳은 탄인지 발은 가벼웠습니다. 남 여사의 발길이 머문 곳은 대외협력처였습니다. 11남매의 막내로 기초연금을 받는 그는 평생 모은 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21일(목)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남순자 여사의 장학금 기부식 및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촉식이 개최됐습니다. 김진상 총장, 김종복 대외부총장, 대외협력처 직원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등이 그를 맞았습니다. 경희대와 큰 인연이 없던 남 여사의 기부가 경희 구성원의 마음을 울린 모습이었습니다. 남 여사는 "평생 모은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경희대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인재를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기부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오늘 자리를 통해 경희대와 기부자님의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미지의 세계, 지식 등과의 관계도 인연입니다. 기부자님의 뜻을 이어받아 학생들이 인연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부는 연구 선순환구조의 마지막 부분이다

컴퓨터공학부 박광훈 교수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촉
기술사업화 수익, 컴퓨터공학부 발전기금·산학협력기금 약정

컴퓨터공학부 박광훈 교수가 동영상 압축 기술 국제표준 특허 등록 등을 통한 기술사업화 수익의 일부를 컴퓨터공학부 발전기금과 산학협력기금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는 각각 1억 원, 총 2억 원을 약정해 아너스클럽으로 위촉됐습니다. 위촉식은 2024년 12월 24일(화)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동영상 압축 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를 국제표준 특허로 등록한 성과가 대표적입니다. 이 기술은 대용량 동영상 데이터를 압축해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빠른 속도로 고화질 동영상을 매끄럽게 볼 수 있게 합니다. 박 교수는 "직접 개발한 기술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스마트폰, TV, PC 등에 제가 개발한 기술이 탑재돼 그 꿈을 이뤄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기술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부는 박광훈 교수가 품고 있던 또 다른 꿈이었습니다. "연구의 선순환구조, 그 마지막 부분이 기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힌 박 교수는 "엔지니어로 살아오며 연구의 선순환구조를 완성한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컴퓨터공학부와 산학협력단의 도움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업에서 30여 년 동안 경희 치대, 경희인의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김상석·홍선희 동문(치과대학 89학번) 발전기금 기부
아들 김한이 군 경희대 치과대학 입학 확정 후 기부 실천

김상석·홍선희 동문 부부가 치과대학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식은 2024년 12월 26일(목)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를 전 대외협력처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후 급히 준비됐습니다. 홍선희 동문이 기부 의사를 밝힌 전화였습니다. 김상석·홍선희 동문 부부는 둘째 아들 김한이 군의 경희대 치과대학 입학 확정 소식을 접한 후, 기부를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홍 동문은 "그동안 모교에 기부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가 입시를 앞둔 상황에 부정적으로 보일까 망설였습니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통해 아이의 합격 사실을 알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동문 부부는 "모교에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을 배웠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현업에서 30여 년 동안 치과의사로 일하며 경희인이라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미약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라면서 모교의 발전을 응원했습니다. 김상석 동문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와 동문의 줄탁동기, 학교 발전의 밑거름

약학대학 90학번 동기회 졸업 30주년 기념 기부
2012년부터 졸업 30주년 기념 기부 전통 이어와

2024년 졸업 30주년을 맞이한 약학대학 90학번 동기회가 발전기금을 기부했습니다. 약학대학은 매해 졸업 30주년을 맞이하는 학번 동기회가 합심해 발전기금을 모아 기부하는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졸업 30주년을 맞아 78학번 동기회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모아 기부하면서부터 새로운 전통이 시작됐습니다. 김동근 약학대학 동문회장은 "졸업 30주년 기념 기부는 특별한 전통이자, 약학대학 동문회의 자랑입니다. 기부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간 소홀했던 동기간 관계가 좋아지고, 그 결과로 동문회 활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모은 기금이 학교와 후배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니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부에 약학대학 90학번 동기 31명이 참여했습니다. 홍실 동문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동기들에게 연락하면서 잊고 지내던 학창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동기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동순 약학대학장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줄탁동기'라는 말처럼 학교와 동문의 노력이 맞아떨어져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동문회가 보여준 관심 덕에 약학대학관의 학습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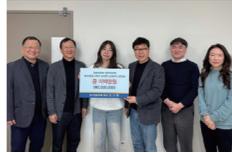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순간

Kyung Hee Donation

2024



3월



본초학 성적우수 장학금 수여



NHN링크 발전기금 기부

4월



크라उन관 개관 50주년 기념 감사 공연



의약학 분야 교육·연구 응원하는 현물 기부

5월



약학대학 문규호 교수 발전기금 약정



이영림 기념관 개관식



문주현 동문(회계학과 83학번, ㈜MDM 회장)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위촉



(주)패스트부 학생취업지원기금 기부

6월



故 이민영 동문 (전자계산공학과 89학번) 강의실 네이밍 현판식



회계법인 숲, 공인회계사반 '청현재' 장학금 전달

7월



문과대학 박주택 교수 기부금 전달



씨앤클컴퍼니 발전기금 기부

8월



한외과대학 안덕균 교수 기부금 전달



경희대학교-하나은행 협약식 및 발전기금 출연식



의상학과 송화경 교수 경희 Fellow 상금 전액 기부

2024년, 경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시간의 결을 따라 정성스럽게 쌓였습니다.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귀한 뜻이 더해져, 경희는 교육과 연구, 인재 양성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이어진 소중한 동행의 순간들을 따라가며, 경희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Towards Global Eminence

2024

2025



9월



약학대학 90학번 동기회 발전기금 전달



권지혜 동문(화학과 86학번) 기부금 전달

10월



김경숙 기부자 기부금 전달

11월



경희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남순자 여사 아너스클럽 위촉식 및 기부금 전달식



故 이규중 명예교수 유족, 장학금 10억 원 추가 기부

12월



전훈영 동문(스포츠지도학과 13학번) 기부금 전달



창업보육센터(서울) 4개 입주기업, 경희대 창업지원기금 기부



컴퓨터공학부 박광훈 교수 아너스클럽 위촉



김상석·홍선희 동문(치과대학 89학번) 발전기금 기부

1월



한국어학과 이화형 명예교수 강의실 네이밍 현판식



동안교회, 동안 비전 장학금 1억 원 기부



故 박기현 학생(일반대학원 기초약학과) 학부모 발전기금 전달



경희 100년을 향한 감사와 도약의 밤

2월



약학대학 졸업생 일동 발전기금 기부

이 타임라인은 경희의 성장과 변화가 기부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의미 있는 여정의 기록을 나눕니다.

당신의 나눔에 답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은 누군가의 오늘을 지탱하고, 내일을 꿈꾸게 했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하며, 장학생들이 진심을 담아 편지를 전해왔습니다.



김완길장학

김완길 동문(공과대학 화학공학과 85학번, ㈜미래씨엠티 대표이사)이 화학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을 위해 기부한 장학금입니다. 대상자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을 선별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ampaign

Thank You!



우선 이렇게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김완길장학 수혜'라는 꿈 같은 일이 저에게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장학 수혜를 통해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며 지낼 때는 알 수 없었던 마음과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김완길 선생님을 직접 뵙는 순간, 한 가지 잊고 있었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부자의 마음이었습니니다.

선배님께서 한참 어린 저를 경희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따뜻한 마음을 깊이 느끼면서, **'나도 앞으로 이렇게 인정과 나눔을 베풀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기부자님들께 은혜를 입은 많은 이들이 비슷한 마음을 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늘 애써주시는 모든 기부자님과 이를 함께 지원해 주시는 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희를 더욱 빛나게 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운연장학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업성적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계열과 관계없이 등록금의 반액을 졸업까지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 장학입니다. 다른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가 가능하고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도 받을 수 있는 덕에 수혜 효과가 더 큼니다.故 이규중 명예교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아내인 김인선 여사와 유족들이 2022년 20억 원을 기부하면서 장학기금이 조성됐고, 2024년 10억 원 추가 기부로 더 오랜 기간 장학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Kyung Hee University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는 주변 어른들의 믿음과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기부자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을 갖고 기부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운연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연수를 비롯한 교내외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인선 기부자님을 비롯한 모든 기부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장학금은
제 노력과 가능성에 대한 증표로 다가왔고,
장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부자분들께서 주시는 믿음을 바탕으로 경희를 빛내고,
받은 것보다 더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경희와 기부자님들에 대한 최대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영장학

국제캠퍼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기부자가 학업보다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자립 청년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조성됐습니다. 매 학기 서울·국제캠퍼스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동안교회의 동안비전장학과 함께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장학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댈 어른과 가족이 없는 저에게 학업과 생계 유지를 동시에 해나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학금은 제게 실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공부 시간보다 아르바이트 시간을 더 늘려야 했던 상황에서, 이번 장학금은 학업에 대한 열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앞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기부자님께서 주신 소중한 장학금을 반드시 가치 있게 사용해 지원해 주심에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 기부자님과 같이 제 능력과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주신 장학금은 제게 있어 단순한 돈이 아닌 제 꿈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LOVE

처음 사회에 나올 땐 무섭고 걱정되지만 했는데 막상 나와서 열심히 살아보니 기부자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제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학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것도 기부자님 덕분이예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저도 남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기면 **기부자님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장학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와 연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립 준비 청년인 학생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넘어서 제 삶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부자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나눔과 관심은 제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문주 장학재단 장학

문주 장학재단은 문주현 동문(경영대학 회계학부 83학번, MDM그룹 회장)이 2001년 설립한 장학재단입니다. 대학 시절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느 독지가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친 문주현 동문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시작한 나눔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천여 명의 학생에게 100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의과대학
본과 3학년
류화림



문주현 회장님에 대하여

문주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문주현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거두신 점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후배들에게 돌려주시는 점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한 결심과 행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나서 달라진 게 있나요?

방학 때 자기계발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조금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장학금을 받으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일들도 해보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문주현 회장님께는 편지로도 여러 번 감사 인사를 드렸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 그리고 후배들이 장학금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게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산 이건수 장학

이건수 동문(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60학번, 동아일렉콤 회장)이 출연해 조성한 장학기금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단과대학에서 품성 및 인간성이 건실한 학생을 추천받아 매 학기 서울·국제 양 캠퍼스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학적과 성적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까지 계속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건수 회장님, 안녕하세요.

덕산 이건수 장학생으로 벌써 1년 반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4학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곧 사회로 나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는 이렇게 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살아갈 힘을 크게 얻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열아홉 살이었던 저에게 편찮으신 상태에서도 웃으시며 용돈을 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 장학금은 단순히 돈을 넘어 늘 저에게 감동을 주고,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값진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얻은 힘을 글로나마 꺾꺾 눌러써 봅니다. 저의 진심이 닿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으로 미래를 창조하다

경희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함께 걷는 마음, 함께 여는 100년

경희대학교는 2049년 개교 100주년을 준비하며 '경희 Spirit & Pride 캠페인'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의 한 장면으로 2024년 11월 9일(토) 국제캠퍼스에서 '경희사랑 한마음 걷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개회식에서 김진상 총장은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경희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며, 세계적 대학으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영덕 총동문회장은 "모교가 세계 평화와 문화 복리를 이끄는 인재를 키워갈 수 있도록 동문들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걷기대회는 개교 75주년, 체육대학 75주년, 공과대학 5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열렸습니다.

걷기대회에는 동문, 재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 등 총 1,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가족 단위 참가자뿐 아니라 ESG 캠페인에 참여한 타 대학 학생들과 유학생들도 행사에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걷기 코스는 개교 75주년을 기념해 7.5km로 구성됐습니다. 코스 중간에는 '줍깅'을 통한 환경 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완보 이후에는 선승관에서 폐막행사가 열렸습니다. 경희 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펼쳐졌고, 경품 추첨과 함께 잔치국수와 주먹밥이 제공됐습니다.

이번 행사 참가비 전액은 '토닥토닥 든든밥상 캠페인' 기금으로 적립됐습니다. 선승관 한편에는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도너월(Donor Wall)이 설치되어, 많은 참가자가 기념사진을 남기며 그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외에도 돌림판 경품 이벤트, 학교 기업 제품 할인 부스, 응원 영상 메시지 녹화 공간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많은 이들의 발길을 모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경희가 100년을 넘어,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스케치 영상 보기



사진 보기



경희 100년을 향한 감사와 도약의 밤

경희의 역사와 전통, 가치와 철학은 언제나 '인류'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찾아 나서는 것이 경희의 역사이자 미래입니다. 그 가치에 공감한 동문, 교수, 직원, 학부모, 학생, 일반인 등이 경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희는 2025년 2월 14일(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부자를 초청해 '경희 100년을 향한 감사와 도약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환영사에서 "경희 가족 여러분의 아낌 없는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총장 취임 후 지난 1년간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덕에 도전과 성취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라는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경희 100년'(2049년), 세계적인 대학을 향한 여정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어 김종복 대외부총장은 기부금 현황과 성과를 보고하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희의 발전기금은 최근 5년간 약 1.5배 증가해 2024년 기준 104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 중 74%는 교육인프라 및 장학기금에 사용됐습니다. 해당 기금은 도서관, 리사이틀홀, 임상시뮬레이션센터 등 교육시설 개선과 장학금, 첨단 연구 지원 등에 활용됐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석학 초빙, AI 기반 학습 시스템 도입 등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기부자의 비율은 동문이 가장 높았습니다. 경희는 국내 종합대 기부금 순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진상 총장은 "대학은 학생의 삶을 바꾸고,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라며, "경희의 오랜 꿈인 세계적인 대학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석한 동문들은 경희의 도약을 적극 응원하며 지속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습니다.



‘천원의 점심’ 후배 사랑 학식 릴레이 후원 사업



미래를 키우는 한 끼의 힘

경희대학교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토닥토닥 든든밥상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돈 1,000원으로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기부자 여러분의 정성으로 마련된 기금에서 충당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캠퍼스에서는 총 10회, 약 5,000명의 학생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국제캠퍼스에서도 상·하반기 각 1,000명씩 참여했습니다. 친환경 도시락과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ESG 실천 활동과도 연계되어 캠페인의 의미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든든한 밥 한 끼’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학생들에게는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밥상, 정말 토닥토닥했어요!”

학생들이 전하는 천 원의 점심 후기

밥사주는
선배는 다 예쁘고
잘생겼다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이러한 배움을 나누는 경희인이 되겠습니다~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3학년

I would like to thank on the behalf of all foreigner students. Thank you so much.

무더운 여름 기말고사 시즌에 학식과 음료를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멋진 선배님들 덕분에 후배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선배님들처럼 잘 성장해 학교를 위해, 사회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2학년

- 선배님들 덕분에 피곤한 시험기간 동안 힘을 얻을 수 있는 음료를 받게 되어서 그리고 의미 있는 이벤트를 통해 (텀블러에 음료 담기) 우리와 앞으로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좋은 실천 기회를 얻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4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부를 해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원의 점심을 준비해 주신 많은 후원자님들 덕분에 맛있는 학식을 단돈 천 원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식사업이 꾸준히 이어져 더 많은 학생들이 점심을 거르지 않고 한 끼를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학식을
먹을 수 있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점심값이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 경희 선배님들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저렴한 기회에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응용학과 3학년

수십명, 수백명의 학생들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학부 4학년

선배님들 귀한 후원 덕분에 천원의 점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후배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기부가 대학에서 성장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한 응원으로 느껴집니다. 경희의 품안에서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후배들이 있음을 알아주시길 감사요. 저도 좋은 한의사가 돼 후배들을 돕겠습니다.

한의과대학 4학년

- 요즘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최소 7천 원, 8천 원, 만 원이 훌쩍 넘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천 원으로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잘 먹었습니다^^

평소엔 점심을 거르거나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다섯 번이나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언젠가 후배들을 위해 꼭 기부에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캠페인을 진행해 주신 대외협력처와 매년 소중한 기부로 후배들을 응원해 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여는 오늘의 가치

1949년, 경희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모든 것이 어렵고 힘겹기만 했던 신생 대학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경희는 무에서 유의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경희는 앞으로도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평화로운 지구사회, 풍요로운 미래문명을 창달하는 경희의 창학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며,
'경이로운 경희'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대학다운 미래대학 건설'을 꿈꾸는 경희의 담대한 도전에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Donation Guide

나에게 맞는 기부 방법을 찾아보세요.

대학·학과·전공 발전기금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기부자님의 뜻에 맞는 곳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경희라이언 일만인클럽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1·1·1 법칙, 1달에 1억을 만드는 1만 인의 기적

경희를 상징하는 동물인 '웃는 사자'처럼 거침없이 앞을 향해 전진하는 역동적인 경희인의 기부 모임입니다.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21세기 미래 대학을 위해 경희대학교에 매월 1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자 일만 명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1만 명이 만드는 1만 모금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인데요. 운동선수의 경우 경기에서 적을 베는 승부의 시간은 짧지만 1천 일, 1만 일을 이 순간만을 위해 노력한 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1만 모금의 법칙은 경희를 사랑하는 1만 명의 화합을 일구어내는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1만 원. 누군가에게는 하루 식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영화 관람비로 지출되는 소액입니다. 하지만 1만 원을 1만 명이 1달 동안 기부한다면 경희를 '대학다운 미래 대학'으로 만드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희의 미래는 인류의 미래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교의 발전과 경희의 도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원 예우

뉴스레터 발송



라이언일만인클럽 데이 초청



매년 연말 대학 달력 발송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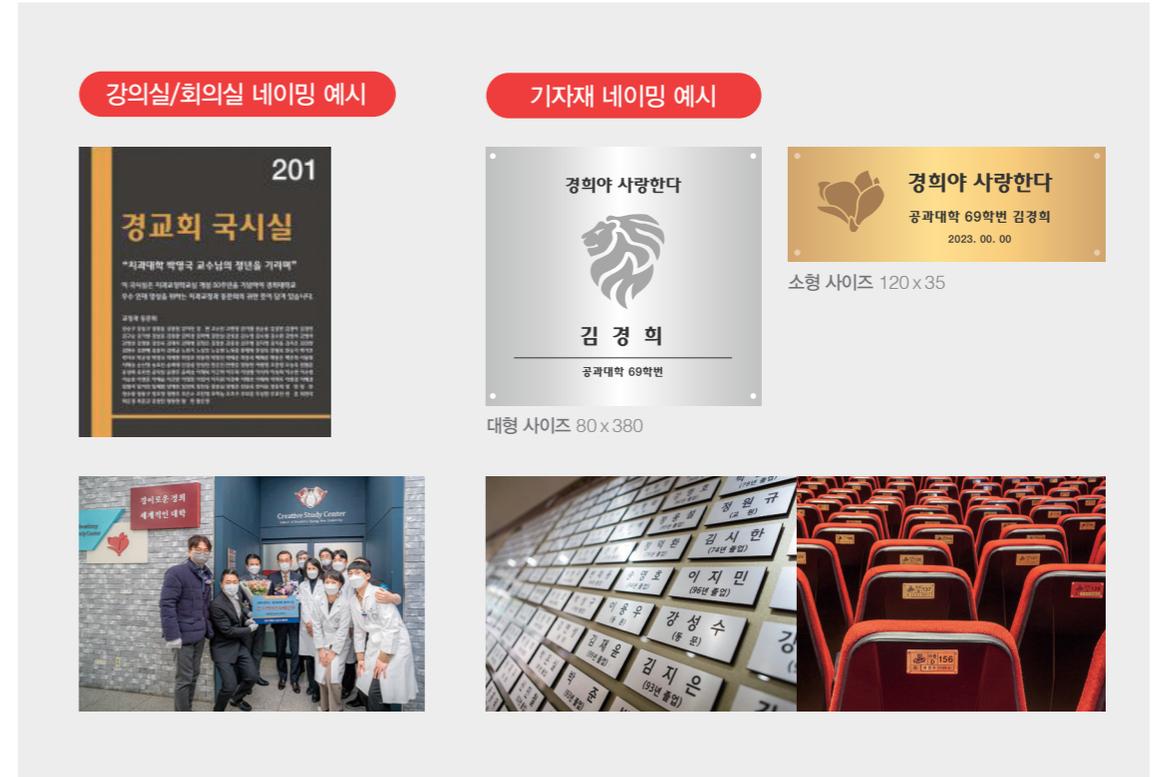
경희 발전을 위한 기부자님의 따뜻한 사랑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품격 있는 예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구분	예우 내용	매그놀리아 클럽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창의 1억 원 이상	창조 3억 원 이상	청운 5억 원 이상	선승 10억 원 이상	평화 20억 원 이상	고향 3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기념품 및 간행물	감사장 및 감사 선물, 간행물, 달력 증정	○	○	○	○	○	○	○	○	○	
	감사패 증정		○	○	○	○	○	○	○	○	
특별 초청	교내외 공연 및 만찬 등 행사 초청	○	○	○	○	○	○	○	○	○	
명예 헌정	명예의 전당	○	○	○	○	○	○	○	○	○	
	기금 명칭 부여			○	○	○	○	○	○	○	
학교 시설 이용 편의	평생 도서관 출입증			○	○	○	○	○	○	○	
	평생 차량 출입증			○	○	○	○	○	○	○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프로그램 할인	본인 70% 직계 존비속 30%	본인 100% 직계 존비속 50%	본인 100% 직계 존비속 70%							
의료 예우	VIP 진료 서비스			○	○	○	○	○	○	○	
	의료비 감면	본인 10%	본인 30%	본인 배우자 50%	본인 배우자 70%	본인 배우자 100%	본인 배우자 100%	본인 배우자 100%	본인 배우자 100%	본인 배우자 자녀 100%	
		10년	20년	본인·배우자 평생(자녀 20년)							
	진찰료	본인 10%	본인 30%	본인 배우자 100%							본인 배우자 자녀 100%
		건강 검진권 증정	1회(최초) (의료기관 기준 적용)	기본 검진권 2매	150만 원 검진권 2매	200만 원 검진권 2매			300만 원 검진권 2매		
추가 지원 (본인 및 배우자)			기본건강검진권 2매 1회 제공	기본건강검진권 2매 5회 제공 (2년 주기)			기본건강검진권 2매 10회 제공 (2년 주기)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경희의료원 40% 강동경희대병원 20%	무료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할인은 상호회사 가입 시 제외										
명칭 부여 네이밍	로비 명패	강의실·실험실 명칭								건물 명칭	
	건물, 강의실, 회의실, 기자재 등에 기부자님의 소중한 귀한 뜻을 담아 드립니다.										

※ 현금 기부 기준(현물 기부 예우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기부자님 명의의 장학기금을 운영해 드립니다.
 ※ 발전기금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 ※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서는 학교 내의 Hall of Fame(고액기부자 벽화)에 성함을 새겨드립니다.
 ※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서는 감사패를 증정해 드립니다.

네이밍 예우

건물, 강의실, 회의실, 기자재 등에 기부자님의 소중한 귀한 뜻을 담아 드립니다.



세제 혜택(특례기부금)

- 개인 기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내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0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초과분은 기부금의 30% 세액 공제)
- 법인 기부** 법인세법에 따라 연간 이익 금액의 50% 범위 내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상속 재산 기부** 유증 및 사인증여, 상속인의 상속 재산 출연 시 기부금 전액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부 시)
- 해외 기부** 미국 거주자(납세자)는 미연방국세청(IRS) 면세승인기관(501-C-3)인 경희국제재단(KHIF, Kyung Hee International Foundation)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그놀리아 아너스클럽

경희에 큰 사랑을 전해 주신
고마운 당신께 드리는 아주 특별한 예우,
품격 있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소중히 보답하겠습니다.

경희 발전을 위한
기부자님의 따뜻한 사랑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품격 있는 예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너스클럽 회원



예우 프로그램

품격 있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아너스클럽의 멤버십을 누리십시오.

기부금 전달식 개최

총장 초청 오찬·만찬 초대

명예의 전당 Donor's Wall,
공간 네이밍 헌정

신규회원 건강검진권 제공

특별인터뷰 기사 게재

다양한 문화행사 초대
거교적 특별행사, 음악회, 문화탐방 등

의료비 감면

VIP 진료 서비스



경희 100년을 향한 감사와 도약의 밤
2025년 2월 14일 롯데호텔

기부자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경희의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본 자료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모금된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한 명단입니다.

1억 원 이상

- (재)범명장학회
- (주)대원고속
- (주)한국씨티은행
- 경희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권지혜
- 김경숙
- 김옥기
- 김인선
- 남순자
- 농어촌희망재단
- 덴티움(정성민)
- 메가스터디교육(주)
- 박광훈
- 주식회사 디지털대성
- 주식회사 하나은행
- 참조은치과(홍선희, 김상석)

5천만 원 이상

- 고촌재단
- 두산연강재단
- 롯데장학재단
- 문병찬
- 문주장학재단
- 사회복지법인미래에셋박현주재단
- 삼성꿈장학재단
- 삼성복지재단
- 신라문화장학재단
- 용남고속(주)
- 우덕재단
- 유한재단
- 이용익
- 일주학술문화재단
- 재단법인 DB김준기문화재단
- 재단법인보건장학회
- 창성장학회
- 한국장학재단

3천만 원 이상

- (재)오뚜기함태호재단
- (재)현대차정몽구재단
- (주)미래씨엠티
- (주)피스코이엔씨
- 김현
- 김호철
- 누베베한의원 흥대점
- 반영장학 기부자
- 아산사회복지재단
- 엄지한의원
- 운영문화재단
- 장혜정
- 재단법인 신흥연송학술재단
- 재단법인 용운장학재단
- 정수장학재단
- 주서령
- 파주쾌적한방병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 한도치과
- 해성문화재단
- 형애장학회

1천만 원 이상

- (재)송원음악문화재단
- (재)우강장학재단
- (재)현송교육문화재단
- (주)네오바이오텍
- (주)씨앤코컴퍼니
- (주)씨에스냉장
- (주)에몬스기구
- (주)제테마
- (주)케이티알파
- (주)퍼슨
- Airbnb Ireland UC
- KPX문화재단
- 강희욱
- 건축사사무소아라그룹
- 고성규
- 故 이수병
- 교촌에프앤비(주)

- 구원장학재단
- 권오병
- 금천종로약국
- 김남재
- 김남중
- 김봉이
- 김용범
- 김중배
- 김추령
- 나라약국
- 노상석
- 디와이피엔에프(주)
- 매원장학재단
- 미래인재육성재단
- 민유기
- 박무원
- 배광록
- 배현수
- 사회복지법인 한국방정환재단
- 산학협동재단
- 삼공장학재단
- 삼송장학회
- 삼일문화재단
- 서관석
- 성옥문화재단
- 세아해암학술장학
- 송파재단
- 송화경
- 신영치과
- 안덕균
- 앨트웰민초장학재단
- 양승경
- 에스지에이 주식회사
- 에프엠씨페렘미네로코리아(주)
- 예수교장로회 동안교회
- 오스탬임플란트(주)
- 오정진치과의원
- 외식경영학과 나눔 동아리
- 우석문화재단
- 유명우
- 윤송조창석문화재단
- 이비엠훈의원
- 이정민
- 이종길
- 인산장학문화재단
- 인송문화재단
- 재단법인 가현신도재단
- 재단법인 삼유장학재단
- 재단법인 오케이배정장학재단
- 전훈영
- 정범진
- 조금재

5백만 원 이상

- (재) 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 (재)백운백학재단
- (재)송천재단
- (주)금양인터내셔널
- (주)디브이파트너즈
- (주)와이케이테크
- 가장큰태평양약국
- 강선무
- 강인욱
- 강진선
- 계산청원치과의원
- 공군교육사령부
- 과천시애향장학회
- 곽혜련
- 국민은행 신매단지점
- 권장혁
- 권재열
- 김선광
- 김영미
- 김영선
- 김영주
- 김완길
- 김해강
- 김희선
- 류재홍
- 문관식
- 문숙장학재단
- 박규창
- 박민정
- 박설아
- 박은정
- 박재현
- 박주택
- 백유상
- 백제한의원
- 본술김종한장학재단
- 사학과 민주동문회
- 상아장학재단
- 서덕순
- 서정민
- 선암장학재단
- 성남시장학회

- 성의사
- 성주호
- 센트럴청원치과의원
- 송상호
- 신안범치과의원
- 신응범
- 신준식
- 심팩최진식장학재단
- 안병주
- 양승현
- 여주태권도장
- 연재장학재단
- 위은서
- 유현지
- 유호범
- 이동훈
- 이범석
- 이상헌
- 이재권
- 이점마
- 이주석
- 이지아
- 이혜정
- 이화형
- 장형진
- 재단법인 가송재단
-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 재단법인 이희건 한일교류재단
-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 재단법인 진암장학재단
- 전북현대모터스FC(주)
- 전종득
- 정복철
- 정시현
- 정준서
- 주식회사 패스트뷰
- 주신영
- 지은림
- 차웅석
- 천만장학회
- 청주동문회
- 치과대학 동창회(정진 외)
-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동문회
-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 총동문회
- 하림장학재단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한권탁
- 황문호
- 황유식
- 회계법인 숲

3백만 원 이상

- (주)덕신이피씨
- Yusuke Yamauchi
- 김선주
- 강지천
- 강지훈
- 경방육영회
- 구철모
- 길재호
- 김명호
- 김선주
- 김설희
- 김영미
- 김예후
- 김우식
- 김주훈
- 남동우
- 대한전기협회장학회
- 문규호
- 미래의동반자재단
- 박상수
- 박수아
- 박수현
- 박영석
- 박욱
- 박인철
- 박정훈
- 박주아
- 박현
- 서민철
- 서병관
- 수림재단
- 신건철
- 신성희
- 아무고나제작소
- 아바이왕순대
- 안효빈
- 양영재단
- 오영달
- 의송장학회
- 이민애
- 이병진
- 이상열
- 이상현
- 이음프랜즈
- 이장희
- 이정우
- 이희돈
- 자하연한의원

3백만 원 이상

장애경
재단법인 송화재단
전영옥
정남호
정산장학재단
정연희
주별
주식회사 주원
차미호
최기현
최수현
최총락
하이트진로홀딩스(주)
하현이
한원장학회
허의남
형남진장학재단

광주회관(엄귀순 대표)
구영준
길진영
김금자
김기태
김도균
김동연
김문철
김미영
김미주
김민경
김상준
김상훈
김성준
김소운
김연정
김연하
김영미
김용하
김윤재
김은영
김재우
김정부
김정애
김정화
김정희
김주희
김준태
김지영
김지운
김진만
김진배
김태용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필희
김해영
김호제
김훈식
김희라
나비발레스튜디오
남상욱
노원소방서(의용소방대)
노재연
노진아
다나카유키야
다우전자(주)
대보건설(주)
대한한약사회
도서출판 현문사
동대문구약사회

동원프라자약국
디제이경영연구소
라인서
류기덕
마구로준
마인즈그라운드(주)
모마치과의원
무기명
무지개온누리약국
문석운
민성욱
밀양소방서
바른선택치과의원
박경문
박균성
박근형
박성규
박성준
박송이
박승민
박약다식
박유경
박정미
박주현
박주홍
박준영
박지훈
박진봉
박진빈
박춘석
박환일
백성욱
법률사무소 세륜 이태훈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 문승
변호사 강석보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영민 법률사무소
보통 약국
보은소방서(의용소방대)
부성희
비바츠아트
비반트
산본척척마취통증의학과의원
상그라
서동혁
서소정
서울시한약사회
서원준
서종현
서총욱
서태석
서혜선
석소현

성기석
소울한의원
손문기
손재식
손정혜
손혁상
송두고
송림푸른하늘치과
송성배
송재규
순환한의원
셀랑코리아
식품공학과동문회(유진현외)
신기순
신성산학재단
신수진
신향순
안준철
약학과 18학번 일동
양고운
양동치
양명희
연수예스치과의원
연합뉴스
영통중앙약국
오르다치과의원
오세운
왕명자
우승희
원규연
원재구
위정국
유가영
유달라
유정목
윤건웅
윤경식
윤기선
윤순희
윤여준
윤은경
윤진원
윤희 주식회사
은창수
이경원
이계희
이규민
이미선
이상규
이상민
이상현
이선이

이성재
이소연
이수열
이승영
이승우
이승재
이아경
이영남
이영월
이용석
이원용
이윤정
이재순
이재열
이정재
이정희
이제승
이종수
이중하
이중훈
이주희
이지치과의원
이철희
이현미
이현석
이현정
이형란
이호설
인석현
인천송도소방서
임경섭
임규동
임인학
장경은
장규태
장석원
장소영
장순기
장윤석
장윤혁
장일성
재단법인 상록
재단법인 선현
재단법인 의천장학재단
재단법인 준제장학회
재단법인 케이알엑스국민행복재단
재단법인연당장학회
재직동문교수 일동
전숙
전익기
전효숙
정극모

정기홍
정미정
정민영
정민형
정소진
정원석
정은경
정인경
정재윤
정종필
정종혁
정지호
정태지
정해길
정환욱
정호선
제일건설(주)
조민형
조선호치과의원
조승제
조영하
조옥현
조운행
조재광
조지영
주성재
주식회사 마일러
주식회사 무신사트레이딩
주식회사 엔프로
주식회사 월드락커
주정민
진건우
진영호
차현후
천주현법률사무소
철원소방서
최민혁
최수정
최연식
최욱희
최윤아
최윤혁
최재우
케이디바이오주식회사
탁은정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58기
판교수빈약국
팔각도
포레스트요양병원 원외탕전실
하광수
한광령
한국난원

한정원
허영범
허이선
현상균
홍기영
홍성연
홍성진
홍승재
홍운영
홍의준
홍일기
홍진모
홍충선
홍현미
황수미
황수현
황영희
황재성
황철수

JIAYAN
Kayo Nakanishi
KEWALIN SIMUANG
KIM YELENA
KUANG JUNFENG
LI BOYANG
LI DAIYING
LI JIAMING
LI QIUNING
LI XIANGYU
LI XINYI
LIANG YALING
LIN YAN
LIU HAILONG
LU JING
MENG JIA
Nazar Kurbanov
NIMBALKAR AJAY SHANKAR
PAN XIUZHU
PIAO LIJING
QU ZIHAN
SHEN XIULI
SHI WENXIN
SHI YUTING
SONG XIN
TANG YING
TANG YUANYUAN
Tetsuya Magara
THAZIN HNIN HNIN PHWAY
WANG CHUNLI
WANG MINGQING
WANG QICE
WANG XINYI
WANG YE
WANG YIXIAO
WANG YUE
WEI LIANG
WU SI YUAN
XIE FUGUI
XIE MENGZHEN
XIONG HONGQING
XU JINGSHI
XU RANRAN
YANG JINLONG(양금용)
ZHAI YUYANG(적우양)
ZHANG SHU
ZHANG YICHENG
ZHANG YIGE
ZHANG YUNZE
ZHANGHANWEN
ZHAO CHUAN
ZHAO SINING

1백만 원 이상

(사)동해연구회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사)한국이스포츠협회
(신규)유성관
(재)한석경 함흥장학회
(주)기산바이오텍
(주)대신환경기술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주)벨베리온
(주)실아래
(주)세종헬스케어
(주)울포랜드
(주)우리은행
(주)지이엔트 애니
(주)프렌킷
ESG 3기 원우회
klook(클룩)
강동뉴욕치과의원
강동호
강민기
강성호
강세찬
강영미
경기도한약사회
경기영화학교연합
경희대태권도총동문회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총동문회
고영실
고재운
관광대학원FCL
관광대학원FCL45기

김재우
김정애
김정화
김정희
김주희
김준태
김지영
김지운
김진만
김진배
김태용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필희
김해영
김호제
김훈식
김희라
나비발레스튜디오
남상욱
노원소방서(의용소방대)
노재연
노진아
다나카유키야
다우전자(주)
대보건설(주)
대한한약사회
도서출판 현문사
동대문구약사회

박송이
박승민
박약다식
박유경
박정미
박주현
박주홍
박준영
박지훈
박진봉
박진빈
박춘석
박환일
백성욱
법률사무소 세륜 이태훈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 문승
변호사 강석보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영민 법률사무소
보통 약국
보은소방서(의용소방대)
부성희
비바츠아트
비반트
산본척척마취통증의학과의원
상그라
서동혁
서소정
서울시한약사회
서원준
서종현
서총욱
서태석
서혜선
석소현

양고운
양동치
양명희
연수예스치과의원
연합뉴스
영통중앙약국
오르다치과의원
오세운
왕명자
우승희
원규연
원재구
위정국
유가영
유달라
유정목
윤건웅
윤경식
윤기선
윤순희
윤여준
윤은경
윤진원
윤희 주식회사
은창수
이경원
이계희
이규민
이미선
이상규
이상민
이상현
이선이

이정재
이정희
이제승
이종수
이중하
이중훈
이주희
이지치과의원
이철희
이현미
이현석
이현정
이형란
이호설
인석현
인천송도소방서
임경섭
임규동
임인학
장경은
장규태
장석원
장소영
장순기
장윤석
장윤혁
장일성
재단법인 상록
재단법인 선현
재단법인 의천장학재단
재단법인 준제장학회
재단법인 케이알엑스국민행복재단
재단법인연당장학회
재직동문교수 일동
전숙
전익기
전효숙
정극모

정기홍
정미정
정민영
정민형
정소진
정원석
정은경
정인경
정재윤
정종필
정종혁
정지호
정태지
정해길
정환욱
정호선
제일건설(주)
조민형
조선호치과의원
조승제
조영하
조옥현
조운행
조재광
조지영
주성재
주식회사 마일러
주식회사 무신사트레이딩
주식회사 엔프로
주식회사 월드락커
주정민
진건우
진영호
차현후
천주현법률사무소
철원소방서
최민혁
최수정
최연식
최욱희
최윤아
최윤혁
최재우
케이디바이오주식회사
탁은정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58기
판교수빈약국
팔각도
포레스트요양병원 원외탕전실
하광수
한광령
한국난원

1백만 원 미만

WANGCHENXI
(재)울촌재단
(재)종이문화재단
(주)두련
(주)디자인필드
(주)백두조경
(주)비즈마켓
(주)시프트미러
(주)임상우닷컴
(주)패밀리웨이브
(주)훈프로
2023쿠웅이벤트
3월3일
8번가
ABDUL AZIZ MUHAMMAD
HAIKAL ZAFRI
Akbokeeva Saltanat
chen nuo
CHEN PENGSEN
CHEN SONGZHE
CHEN YINGSHAN
CHEN YUQING
CHEN ZIHANG
DOGDURBEK KYZY SHIRIN
GAO ZHENYUAN
GENG XIAOXIAO
Haru&Aki Flowers
HU FANGYANG
HUANG SHANKE
HUANG XIWEN

SHEN XIULI
SHI WENXIN
SHI YUTING
SONG XIN
TANG YING
TANG YUANYUAN
Tetsuya Magara
THAZIN HNIN HNIN PHWAY
WANG CHUNLI
WANG MINGQING
WANG QICE
WANG XINYI
WANG YE
WANG YIXIAO
WANG YUE
WEI LIANG
WU SI YUAN
XIE FUGUI
XIE MENGZHEN
XIONG HONGQING
XU JINGSHI
XU RANRAN
YANG JINLONG(양금용)
ZHAI YUYANG(적우양)
ZHANG SHU
ZHANG YICHENG
ZHANG YIGE
ZHANG YUNZE
ZHANGHANWEN
ZHAO CHUAN
ZHAO SINING

1백만 원 미만

ZHAO YI
ZHAOCHENGYUAN
강경란
강경태
강규민
강내영
강덕현
강동우
강록지
강문자
강민구
강민서
강민서
강민정
강민지
강민채
강민혁
강민형
강병걸
강병문
강병연
강서영
강서현
강석희
강성우
강성원
강성호
강수영
강수정
강승연
강승제
강신아
강아현
강예리
강우혁
강윤성
강은정
강은주
강은진
강이삭
강인수
강재엽
강전영
강주석
강주영
강준원
강지숙
강지애
강지혜
강진화
강찬금

강태진
강한이
강현주
강형규
강혜린
강희석
강희원
경희김한겸한의원
경희꽃화원
경희대 ROTC
경희대 품새부
경희대학교부산 총 동문회
경희부강한의원
경희수한의원
고광덕
고광우
고기아미안해
고도형
고미숙
고서영
고서진
고영대
고영은
고영의
고영정
고원준
고원진
고윤아
고은서
고은영
고은정
고정환
고준혁
고찬란
고창남
고채빈
고청훈
고하나
고혁기
고화섭
고효민
고효진
골목한식
공건식
공민석
공자원
공천석
곽교린
곽내영
곽도원
곽민준

곽병준
곽상덕
곽운섭
곽유진
곽윤철
곽중훈
광개토9대리점(주)
구경여
구교섭
구나운
구민숙
구수정
구원숙
구유진
구태영
구태운
구현주
굿월치과 서면점
권규한
권기덕
권기봉
권도현
권미정
권민진
권민정
권민주
권성안
권성인
권수진
권순호
권영균
권영보
권예슬
권오희
권용수
권은정
권익환
권재윤
권장무
권종우
권준석
권지영
권태연
권혁상
권현숙
권혜빈
권혜영
권희준
극락돈
금곡 열지 약국

김가을
김건우
김건우
김경민
김경선
김경수
김경수
김경수
김경수
김경아
김경태
김경현
김경호
김경희
김경희
김관혁
김광수
김광우
김광진
김광표
김권일
김규영
김근철
김근태
김기국
김기남
김기자
김기표
김기형
김나드
김나연
김나영
김나용
김나혜
김낙우
김난희
김남욱
김남일
김다은
김다현
김다혜
김대근
김대기
김대범
김대선
김대용
김대현
김덕기
김도겸
김도균
김도연

김도연
김도이
김도현
김도현
김돈정
김동건
김동구
김동규
김동산
김동언
김동영
김동욱
김동은
김동주
김동주
김동준
김동찬
김동혁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환
김동훈
김동훈
김래영
김만복
김만석
김명심
김묘진
김무균
김문교
김미선
김미선
김미소
김미숙
김미숙
김미정
김미정
김미혜
김민규
김민규
김민서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김민수
김민식
김민아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지
김민찬
김민채
김민혜
김범수
김범수
김범지
김범진
김병욱
김병익(족발신선생영통점)
김병찬
김병학
김보근
김보람
김보람
김보민
김보성
김봉구
김부건
김빈
김사무엘
김상욱
김상한
김상현
김상훈
김상훈
김만복
김만석
김명심
김묘진
김무균
김문교
김미선
김미선
김미소
김미숙
김미숙
김미정
김미정
김미혜
김민규
김민규
김민서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김민수
김민식
김민아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성이
김성주
김성현
김성현
김성환
김성훈
김성훈
김성희
김세연
김세은
김세진
김세현
김소명
김소원
김소진
김소현
김소현
김송은
김수민
김수민
김수민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이
김수진
김수하
김수하
김수혁
김수현
김수현
김수형
김승구
김승주
김승주
김승준
김승한
김승현
김승현
김시연
김시우
김시원
김시준
김시중
김아영
김아현
김안박이비인후과
김양석
김연섭
김연중
김영갑

김영근
김영덕
김영동
김영란
김영란
김영량
김영록
김영삼
김영석
김영순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철
김영태
김영학
김영훈
김영희
김예성
김예은
김예준
김예화
김옥지
김요한
김용겸
김용구
김용권
김용석
김용찬
김용현
김용호
김용화
김우순
김욱재
김욱진
김운성
김원우
김원준
김원중
김유건
김유경
김유경
김유라
김유리
김유림
김유비
김유빈
김유선
김유선
김유안
김유영
김유주

김유진
김유하
김윤나
김윤범
김윤아
김윤호
김윤희
김은강
김은빈
김은상
김은서
김은성
김은영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혜
김익화
김이습
김이지
김일형
김재강
김재경
김재현
김재홍
김정길
김정미
김정산
김정수
김정은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희
김정희
김조윤
김종권
김종민
김종범
김종복
김종수
김종우
김종인
김종호
김종후
김종훈
김주안
김주연
김주영
김주용

김주철
김주현
김주형
김주희
김준명
김준범
김준성
김준업
김준하
김준호
김준희
김준희
김지석
김지석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우
김지유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정
김지희
김지훈
김진교
김진상
김진성
김진솔
김진영
김진오
김진완
김진희
김찬영
김찬우
김창목
김창현
김채린
김채연
김채윤
김채은
김채현
김천수
김천형
김철
김철완
김춘영
김태광

1백만 원 미만

윤지인	윤훈상	이명천	이선희	이유하	이정민	이채경	임다빈	장민주	전은화	정윤석	정회원	조한성
은누리중앙프라자약국	유지훈	윤희중	이무원	이상구	이정석	이채연	임대영	장민환	전인수	정윤성	정희석	조현숙
온유민	유창석	은순애	이문우	이성민	이정은	이재은	임동순	장보아	전정화	정윤성	정희재	조현우
왕가항	유하은	은평경희부부한의원	이문자	이성인	이유진	이재현	임민혁	장석민	전준환	정윤재	제유진	조현익
우민국	유한솔	음채은	이미경	이성훈	이윤구	이천일	임범수	장세은	전중환	정윤주	제이엘피트니스	조형준
우성미	유한책임회사 이언	이가연	이미림	이성희	이윤님	이철민	임보연	장수빈	전지영	정윤지	(영통점)	조혜림
우수혜	유현석	이가영	이미숙	이세원	이윤서	이춘호	임부자	장수원	전지원	정을진	조경환	조혜빈
우정호	유현철	이가영	이미연	이세은	이윤성	이충영	임사비나	장승우	전찬호	정의연	조규영	조혜영
우희철	유형래	이가용	이민수	이세현	이윤숙	이태주	임상미	장연준	전형철	정의용	조기호	조호준
원서희	유형진	이가은	이민우	이소정	이윤오	이태훈	임선영	장영락	전해진	정의현	조대현	조희원
원연호	유혜림	이가은	이민재	이승현	이윤우	이하민	임성옥	장완석	전호민	정이나	조동환	주동묵
원유열	유호린	이가희	이민조	이수민	이유희	이하영	임성채	장완성	정구윤	정재경	조두행	주동욱
원창연	유호석	이강민	이민철	이수복	이은걸	이하윤	임수아	장용섭	정군화	정재열	조미희	(㈜밸류인사이드랩
원혜성	유환철	이강혁	이민형	이수아	이은경	이한민	임수하	장우창	정낙호	정재윤	조민경	주선형
월진재단	유희정	이건형	이범순	이수영	이은미	이한비	임신자	장유현	정다영	정재현	조민지	주식회사 너스커넥트
위정범	유희주	이경래	이병숙	이수현	이은배	이한순	임여진	장인석	정다현	정정철	조병렬	주식회사 리얼리머스
유가현	육순형	이경미	이병숙	이수현	이은상	이해인	임영우	장인엽	정담희	정종욱	조서현	주식회사 바이오핏케어
유강현	윤강현	이경진	이병찬	이숙경	이은선	이행	임요셉	장재영	정대균	정종천	조석현	주식회사 원앤원솔루션
유건연	윤경숙	이경태	이병철	이승민	이은옥	이현기	임우경	장정숙	정미선	정종태	조성인	주식회사 하마다랩스
유건호	윤남경	이경현	이병훈	이승연	이은정	이현미	임윤비	장정인	정미애	정종필	조성훈	주안백화점약국
유경민	윤대협	이경희	이보화	이승연	이은진	이현복	임윤주	장정희	정민교	정종필	조소연	주영인
유경주	윤덕진	이경희	이복란	이승우	이은진	이현서	임종길	장준복	정민섭	정주영	조소현	주이진
유광민	윤민혁	이계철	이복희	이승욱	이은현	이현아	임종호	장준혁	정민숙	정주용	조수혁	주정현
유광석	윤민혜	이관용	이봄비	이승재	이응규	이현정	임준원	장지우	정민약국	정준기	조승기	주현미
유국진	윤상녕	이광봉	이상민	이승준	이의주	이현주	임지연	장지원	정민우	정준모	조양래	주형찬
유길호	윤석준	이광은	이상민	이시백	이의한	이현주	임지영	장지호	정민재	정준우	조영애	주호식당
유덕주	윤선정	이광조	이상순	이아린	이인규	이현진	임지원	장창영	정상훈	정지상	조용기	지구삼
유민영	윤성상	이규호	이상엽	이어진	이인애	이혜란	임진선	장터밥상	정서윤	정지영	조용남	지도준
유상근	윤성우	이근창	이상용	이역이	이인화	이혜린	임진택	장현섭	정석환	정지영	조용희	지상현
유상림	윤소라	이금	이상원	이연아	이임정	이혜진	임태연	장현아	정선영	정지윤	조원현	지성환
유상오	윤소연	이금화	이상위	이연희	이장훈	이호	임태웅	장혜림	정성곱창전문	정지혜	조유미	지수인
유상희	윤수연	이기정	이상윤	이영광	이재균	이호기	임하영	장혜지	(발산점)	정지혜	조유정	지승렬
유순지	윤영선	이기정	이상임	이영구	이재기	이호기	임현우	장호재	정성모	정지훈	조윤정	지승현
유승아	윤예은	이길연	이상헌	이영란	이재남	이호선	임현태	장호린	정성훈	정진모	조은별	지창언
유신정	윤용식	이다건	이상혁	이영식	이재동	이흥규	임형섭	장효성	정세리	정진무	조익현	지현우
유써블(Youthable)	윤재훈	이다은	이상화	이영주	이재민	이화준	임혜경	전귀선	정세윤	정진호	조인미	지혜원
유영춘	윤정원	이도연	이상훈	이예나	이재백	이환수	임호연	전동환	정수현	정진훈	조인숙	진소정
유예지	윤종호	이동건	이상훈	이예령	이재연	이환열	잇츠소유	전문규	정승환	정찬원	조장희	진숙경
유용석	윤종환	이동구	이상훈	이예린	이재영	이호반	(경희대 본점)	전미경	정신규	정창모	조재경	진승범
유용철	윤준	이동기	이상휘	이예인	이재우	이효석	장건오	전민우	정연돈	정창민	조재선	진승현
유용선	윤지민	이동재	이서영	이예주	이재욱	이효송	장광현	전복실	정연표	정창현	조재현	진욱
유은정	윤지민	이동준	이서희	이예지	이재욱	이후신	장나영	전성호	정영재	정태우	조정래	진호
유인숙	윤지선	이동현	이석근	이예진	이재웅	이회영	장대식	전소민	정용석	정택기	조정민	차성환
유장준	윤지원	이동현	이석훈	이예찬	이재웅	이회정	장덕진	전소영	정우빈	정해용	조정훈	차유주
유재민	윤지인	이동희	이선미	이용석	이재원	이희태	장덕환	전소현	정우상	정헌중	조준기	차윤선
유재선	윤태일	이래경	이선민	이용성	이재은	이희표	장도영	전수민	정우창	정혁상	조중환	차재우
유정민	윤태호	이려안	이선우	이용우	이재준	익명(국제캠)	장동주	전영덕	정원규	정현욱	조진성	착한낙지
유정우	윤하은	이려준	이선우	이용정	이재천	익명후원	장명수	전영수	정원식	정현중	조진연	참약국
유정우	윤현수	이로운	이선중	이용택	이재희	인경수	장문석	전영준	정원영	정현철	조창오	채명기
유정윤	윤형준	이만균	이선주	이용휘	이정문	임관혁	장문석	전용선	정원욱	정현향	조철민	채유나
유정현	윤혜현	이명귀	이선화	이우경	이정민	임교범	장미내	전유경	정원희	정혜정	조태엽	채윤병
유중근	윤홍빈	이명상	이선희	이우휘	이정민	임근우	장미희	전윤희	정유리	정호균	조한우	채지영

1백만 원 미만

천경원	최연우	최형규	한유미	홍관영
천예원	최영태	최형민	한은정	홍명희
천일영	최예린	최혜민	한자경	홍민기
천지유	최우영(고맙소)	최혜선	한재광	홍범일
청솔디자인	최원영	최혜숙	한정섭	홍석표
청암약국	최윤미	최호성	한정은	홍성윤
체감한의원	최윤영	최호영	한종민	홍승표
최경미	최윤지	최홍봉	한종표	홍신영
최경혜	최윤희	최효정	한지한톡 주식회사	홍아름
최광선	최은수	최훈석	한지훈	홍양숙
최광준	최은아	최희라	한진욱	홍영식
최규철	최은주	최희섭	한창석	홍예림
최기원	최재구	추연주	한창용	홍우중
최대호	최재식	커피힐	한재연	홍은기한의원
최대훈	최재연	탁효건	한태협	홍인수
최동욱	최재혁	태양스튜디오	한평조	홍자경
최만수	최정미	태윤희	한현구	홍재원
최명실	최정우	통영강	한현우	홍전일
최명현	최정원	투파인드피터	한현정	홍준석
최문선	최정윤	파리바게뜨 경희대점	한혜경	홍진숙
최문숙	최정인	팜메이트 하나로 약국	함대현	홍혜정
최문식	최정준	풍심당	함동준	화이트캣
최민우	최정현	퓨처밀	함민지	화현준
최민찬	최정혜	하건우	함부철	황광일
최병기	최중호	하모너스	함장식	황동환
최병직	최주철	하민성	함초롬	황범주
최병희	최주호	하정민	함현숙	황봉희
최봉서	최주희	하창현	함현지	황석종
최봉용	최준선	하채연	해림복사실	황선진
최상준	최준용	하태민	허강인	황선학
최서연	최준원	한결	허대욱	황선희
최서희	최준호	한관희	허동현	황성수
최선심	최지선	한국순대	허두용	황수용
최선호	최지안	한남규	허브약국	황영석
최선호	최지연	한덕영	허석형	황용국
최선희	최지연	한도연	허성혁	황원주
최성규	최지원	한명남	허수영	황윤섭
최소림	최지윤	한미연	허연희	황은비
최수연	최지현	한미영	허유진	황은숙
최수영	최지형	한미혜	허윤호	황은옥
최승아	최지희	한민규	허정민	황인성
최승연	최진무	한백	허정욱	황인찬
최승재	최진혁	한상	허정일	황정선
최승주	최창용	한상은	허창석	황정혜
최승호	최치훈	한상진	현강약국	황준혁
최시환	최태원	한선영	현공인증개사	황지홍
최아영	최필호	한솔	현규진	황채원
최양우	최하나	한솔약국	현대용	황호원
최여진	최해민	한승윤	현방오백 소갈비살	휘경인삼사우나
최여진	최해진	한영신	형서은	
최연우	최현주	한용인	홍건	
	최현홍	한원국	홍경희	

경희 후원의 집

'경희 후원의 집'은 경희대학교와 기부약정을 맺고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며 장학금을 후원해 주시는 학교 주변 상가 커뮤니티입니다.

8번가	싸왓디타이	달콤한위로 경희대 국제캠퍼스점
Haru&Aki Flowers	아리아	맘스터치
갈비명가 이상	아이데코안경	메콩타이 영통점
경희중앙약국	아지트K	명륜신사갈비 용인경희대캠퍼스점
고기야미안해	에잇올리	변호사 강석보 법률사무소
골목한식	유성관	복비뇨기과
광주회관	잇츠소유(경희대 본점)	뷰티올
극락돈	청솔디자인	비티제이
나엘상사	태양스튜디오	삼부자갈비
노바이탈리아노	파리바게뜨(경희대점)	소담샤브칼국수
뉴델리	팔각도(경희대점)	연우피앤씨
다우전자(주)	푸드스토리	영통복요리
달콩	한국난원	영통원탑정형외과
두레박	허브약국	오르다치과의원
등촌칼국수(경희대점)	현공인증개사	오피스넥스 수원점
마구로준	현방오백소갈비살	윤빛한의원 수원영통(舊경희수한의원)
메모아르	화이트캣	장터밥상
반월	휘경인삼사우나	주호식당
비반트	3월3일	착한낙지
샤갈의마을	경희꽃화원	컴포즈커피 경희대국제캠퍼스기숙사점
샤브샤브 홍학식당	경희요가필라테스	투파인드피터 영통점
상그라	김앤박이비인후과	한국순대
성의사	나비발레스튜디오	현강약국

아레테클럽 가입 교원

아레테클럽은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한 교원 커뮤니티입니다. 총 3천만 원 이상 기부하시거나 약정을 통해 지속해서 기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교원분들께 아름다운 나눔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아레테클럽으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간호과학대학	강영미	법학전문대학원	최광준	의과대학	정민형	공과대학	김선국		
	김연정		김선주		조정제		이용택		
	김주희		김연하		허영범		오종민		
	라인서		김준태		구현주		정원석		
	박선희		서소정		권장혁		장윤석		
	석소현		송화경	김은영	유기영				
	송민경		이현정	김주훈	김우식				
	신성희		생활과학대학	장경은	이과대학		박규창	전자정보대학	한승무
	신현숙			장윤혁			서민철		김진상
	윤은경			정소진			안정선		박욱
	이지아			정윤주			이제승		홍충선
	임여진			제유진			주성재		허의남
	장미희		조지영	황철수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박광훈	응용과학대학	이동훈
	장애경		주서령	이정희			손문기		
	정연희		김남중	김정부			강세찬		
최지선	류종훈	김학민	정기홍						
한정원	문규호	이효설	김해영						
황원주	서혜선	홍성진	생명과학대학	강동호	외국어대학	손영숙			
황지인	이경태	고성규		유정목					
경영대학	약학대학	이종길		김봉이		김미주			
		김민경		김호철		김영주			
		윤여준		남동우		황수현			
		장혜정	박성규	이선이					
		정민영	박정미	이철희					
최연식	정은경	배현수	예술·디자인대학	한광령	체육대학	전익기			
황문호	최진우	백유상		김도균					
공공대학원	음악대학	강석희		서병관		이수경			
		손혁상		김희라		임사비나			
		이은배		양고운		장규태			
		조영하	윤진원	장문석					
		지은림	이아경	조성훈					
국제교육원	무용학부	이윤정	김우식	차웅석					
		조현용	김원	구철모					
		김영미	김진배	이계희					
		김지영	동석호	이규민					
		안병주	류재홍	정남호					
문과대학	의과대학	박인철	박은정	호텔관광대학	정복철	후마니타스칼리지 (서울)인문융합 연구센터	정호선		
		박진빈	오승준						
		이정빈	유달라						
		이주희	윤성상						
		정지호	이상열						
미술대학	노진아	전숙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기부 참여 안내

기부 방법

현금 기부

일시 및 분할 납부, 자동이체 정기 후원 (월간·연간)이 가능합니다.

유가증권 기부

주식 출원이 가능하며, 상장 주식은 증가 기준으로 기부 금액을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유산 기부

유산 전체 또는 특정 재산으로 출연 약정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상속 재산을 출연하실 경우 상속세가 면제됩니다(유언공정증서 작성, 신탁 상속 계약 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기부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 출연 금액을 책정 하며, 기부금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기부

경희국제재단(KHIF)은 미연방국세청 면세 승인기관으로 경희국제재단을 통해 기부하는 미국 납세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방법

일반 약정

발전기금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문자 (사진 촬영 후 1599-3892로 전송),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및 방문 약정

전화하거나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약정 홈페이지(give.khu.ac.kr)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대학교 본관 108호 전화 02-961-0932~3, 2371 팩스 02-961-9400 문자 1599-3892 이메일 give@khu.ac.kr
	국제캠퍼스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대학본부 103호 전화 031-201-3190~1 팩스 031-201-3192 문자 1599-3892 이메일 give@khu.ac.kr

경희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작성하신 약정서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 후 **1599-3892** 로 보내주세요. (문자 수신 전용)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영수증 발급신청 (택1)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E-mail		
	주소 우편물 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본교와의 관계 중복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동문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교수/직원 <input type="checkbox"/> 부속병원/병설학교 <input type="checkbox"/> 기업/일반인		

약정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20년 월 일 납부 (예정) / 금()원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월()원씩
	캠퍼스	<input type="checkbox"/> 서울캠퍼스 <input type="checkbox"/> 국제캠퍼스
	기부금 용도	<input type="checkbox"/> 경희발전기금 * 경희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사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지정발전기금 기금사용용도 : () * 대학(원), 학과(부), 연구소 등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사유 자유기재	
기부추천인		

기부방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입금계좌	서울캠퍼스 하나은행 278-810023-98605 예금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하나은행 428-141962-19304 예금주 경희대학교
		입금자명	<input type="checkbox"/> 기부자명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기부자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입금자명:]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CMS) 매월 25일 출금	은행명	은행
		예금주명	<input type="checkbox"/> 기부자명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기부자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급여공제	사번	* 경희대학교, 경희의료기관 교직원만 해당	

기부자님의 소중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신 기부금은 법정기금으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년 월 일

기부자: (서명)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서울캠퍼스 Tel 02-961-0931~2, 2371 Fax 02-961-9554 우편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본관 108호
국제캠퍼스 Tel 031-201-3190~1 Fax 031-201-3192 우편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대학본부 103호

홈페이지 <http://give.khu.ac.kr> E-mail give@khu.ac.kr

납부 방법

무통장 입금

편하신 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하나은행 278-810023-98605
국제캠퍼스 하나은행 428-141962-19304

교·직원 급여공제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교·직원은
급여공제를 통해 기부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CMS)

약정한 은행 계좌에서 지정 기부금액이
(매월) 납입됩니다.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기부자가 요청하는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약정

미국 거주자는 미국에 있는 경희국제재단(KHIF) 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해외 거주자께서는 대외협력처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KHIF 뉴욕 본부	Sang Surk Noah, Chairman of BOD Kyung Hee International Foundation 520 8th Ave Suite 2202 New York, NY 10018, USA Tel 212-736-2888 (Office) 201-647-8177 (Cel) E-mail noah@khif.org	Woori america Bank 1250 Broadway New York, NY 10001, USA Account Number 107000457 Routing Number (ABA) 026007443
	KHIF LA 본부	Kyung Hee International Foundation LA Liaison Office 625 Columbia St. Brea, CA 92821 Tel 718-551-8122 Fax 714-447-9039



후원 참여하기

온라인 결제사이트로
연결됩니다.

